

미래 산업 · SOC · 복지 분야 대규모 성과

도, 이번주 주요 업무 발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 해상풍력 협약 · 피지컬 AI로 미래 산업 기반 강화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17일부터 21일까지 한 주 동안 도민 생활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굵직한 사업들이 잇달아 추진된다고 지난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철태 전북자치도 대변인은 “전북도가 SOC 확충, 첨단산업 육성, 복지·안전망 강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미래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며 “이번 주는 특히 교통 인프라와 신산업 기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17일 오전 태권도를 앞세운 ‘스포츠 외교 홍보단’을 공식 위촉해 국제 스포츠 교류와 문화 외교 활동을 강화한다. 도는 전주·전북의 국제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해외 스포츠계와 교류 네트워크도 확장 계획이다.

또한, 내년 시행 예정인 다화용기 사용 촉진 사업을 위해 총 10억 원 규모의 민간 공모를 시작했다. 김 대변인은 “일화용품 제조 시대를 위한 지역 맞춤형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방본부는 내년 2월까지

농촌마을 5,334곳을 돌며 주택화재 예방 교육과 홍보를 집중 실시하는 등 겨울철 화재 위험에 대비한다.

18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제60회 전국여성대회’가 열린다. 도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전국 규모 행사에 적극 참여해 지역의 여성정책 방향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19일부터 울산에서 열리는 고향사랑기부 박람회에 전북도와 6개 시·군이 참여한다. 답례품 홍보와 기부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19일에는 전북도와 군산시가 연구기관 및 풍력 기업과 함께 ‘해상풍력 블레이드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조성사업은 전북 해상풍력 산업의 공급망을 본격 구축하는 핵심 단계로 평가된다.

한편 도는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400명의 명단을 행안부와 도·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김철태 도 대변인

조치다.

이날은 또 농도 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 훈련과 14개 시·군 산불진화 경연대회가 진행되며, 도는 동절기 재난대응 역량을 전방위로 점검한다. 아울러 11월 30일 사용기한이 도래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사용을 독려하는 홍보도 병행한다.

20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2025 피지컬 AI 글로벌 포럼’에 전북도가 참여한다. 도는 “전북의 피지컬 AI 산업육성 전략과 산·학·연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지원센터를 2028년까지 1곳 추가 설치해 총 7곳으로 확대하고, 센터별 지원 예산도 늘린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특례보증 사업은 누적 1조 2천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 실적을 기록했다.

21일에는 이번 주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김제 휴게소에서 정식 개통된다. 김 대변인은 “동서 3축 국가 간선도로망이 사실상 완성되며, 새만금과 전주의 연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개발 활성화에도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읍에서는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착공식이 열린다. 산모실 10실과 신생아실 등을 갖춘 조리원은 정읍·김제·고창·부안 등 서부권의 산후조리 공백을 해소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주 SOC, 산업, 복지, 안전 등 전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며 도민 삶의 질과 미래 경쟁력 향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철태 대변인은 “각 실·국이 맡은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전북의 미래를 확고히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기초의회 의장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가지원 촉구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4일 라한호텔서 제270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채택했다. (사진=전주시의회 제공)

4개 특별자치시도, 고향사랑기부로 하나되다

도청 광장서... 제주·강원·세종과 공동기부문화 확산 캠페인 진행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도청 다목적광장에서 전북을 포함한 제주·강원·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함께 ‘기부로 연결되는 특별자치시도’ 공동 홍보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가 주관하고, 각 지역의 주요 행사를 연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참여 확산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전북은 ‘2025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행사와 연계해 진행했다.

행사장 주요 동선에는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고향사랑기부 홍보부스가 설치되어, 각 시·도의 대표 답례품을 활용한 시식·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기부 시 제공되는 혜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톨렛 이벤트, 홍보영상 상영, 14개 시·군 리플릿 배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도민들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가치를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강영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을 사랑하고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참여형 제도”라며 “4개 특별자치시도가 함께한 이번 행사를 통해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상생의 모범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부로 확산되는 특별자치시도’ 행사는 강원(10월 17일)을 시작으로 세종, 전북(11월 14일), 제주(11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지며, 각 지역의 주민자치박람회 및 주요 행사와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도, ‘지역 맞춤형 주택화재 저감 대책’ 4개월간 집중 추진

농촌 마을회관 중심, 현장 안전교육 · 화목보일러 점검 강화

5334개 마을 방문교육 · 3500개 마을 화재예방 방송 운영 등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농촌 고령층의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4개월간 ‘전북 맞춤형 주택화재 저감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촌지역 고령층의 화재취약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마을회관 중심의 현장 안전교육과 화목보일러·난방기구 안전점검을 강화해 사망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북에서는 총 9,991건의 화재가 발생해 67명

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의 64.2%(43명)는 농촌(읍·면)지역 거주자였고, 이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이 74.4%(32명)를 차지했다. 소방본부는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농촌 고령층이 주택 화재에 특히 취약한 구조적 요인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겨울철은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하고 화목보일러 가동이 늘어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다. 소방본부는 이러한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농촌 고령층의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사망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소방본부는 먼저 농촌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하는 방문형 안전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도내 14개 시군 읍·면 지역 5,334개 마을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직접 찾아가 화재예방과 대피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와 취약계층 주거지에는 주택 방문 안전점검을 병행해 현장에서 즉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데 주력한다.

또한 세대 방송수신기가 설치된 3,500개 마을에서는 주 1회 이상 겨울철 화재예방 방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시군 재난방송시스템과 마을이장 육성방송을 활용해 화목보일러 취급 주의사항, 전기·가스 안전수칙, 난방기구 사용 요령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제공해 자율적 안전 실

현을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매월 열리는 읍·면 이장단 회의에서도 화재예방 교육을 꾸준히 진행한다. 소방안전강사가 정례회의에 직접 참석해 주요 화재사례와 예방요령을 안내하고, 이장단이 이를 각 마을에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해 가구별 취약요인 개선과 마을 중심의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한다.

소방본부는 이번 겨울철 동안 농촌 고령층을 중심으로 하는 현장 예방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별 화재 특성과 취약요인을 분석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도, ‘임진왜란 응치 전적’ 종합정비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사적지 원형 보존 중심 정비 · 활용 계획 등... 지역사회와 공유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도청 공연장 세미나실에서 ‘임진왜란 응치 전적 종합정비계획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적지의 보수·정비 및 활용계획을 담은 주요 내용을 지역사회와 공

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2년 12월 국가 사적(史迹)으로 승격된 ‘임진왜란 응치 전적’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수립된 종합정비계획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임진왜란 응치 전적은 완주군과 진안군 경계에 위치한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도와 두 시군이 공동 협력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곳이다. 전북자치도는 완주·진안 양 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역 의견이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추진해왔다.

정비계획에는 사적지 구역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여 옛길 복구 및 탐방로 정비 △토지매입 △안내관·휴게시설·전망대 설치 등 종합적인 정비 방향이 담겼다. 특히 임진왜란 초기 열세 속에서도 호남을 지켜낸 관군·의병의 전투 의지를 보여주는 전적지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주매일의 창간 1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농협 남원시지부

지부장 오영석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